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하동 지역 문화 탐방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흥교)은 이용자 45명과 함께 9일 영취마을지리 유명한 경남 하동에서 지역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다.

이번 문화 탐방은 타지역으로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지난 복지관 문화탐방에 참여하지 못한 분과 장애인복지자리 참여자로 구성이 되었으며 오랜만에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을 벗어나 하동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느끼고 영화 촬영지에서 사진을 찍으며 한껏 웃을 수 있어 기분전환이 되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용자에게 소소한 행복을 드리하고자 기획한 문화 탐방에 참여한 이용자들께서는 무주군의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하동군의 케이블카와 영화촬영지도 관광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이흥교 관장은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주군과 타 지역을 골고루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규모 그룹의 문화 탐방과 모두 함께 참가하는 문화 탐방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복지관 회원들께서 외롭고 소외되지 않도록 두루두루 살펴 문화 복지 사각을 최대한 없도록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부설초 푸른소리합창단, 교육감상 수상

군산부설초등학교 푸른소리 합창단이 '제1회 수시탐포럼 어린이 노래자랑'에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제1회 어린이날을 맞아 노래로 다시 품는 꿈이라는 주제로 옥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임재원 학생의 30명의 단원으로 꾸려진 군산부설초 푸른소리 합창단은 '사과나무의 소원'을 단란한 울림과 조화로 운 발성 실력을 선보이며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이번 노래자랑에는 관내 50여 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선을 거쳐 최종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김왕규 교장은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의 협력이 학생들의 음악적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농협 행복이음 봉사단, 진안사랑장학금 전달

진안농협 행복이음 봉사단(단장 이완승)은 9일 군수실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완승 단장은 "지역 지킴이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결성한 봉사단인 만큼, 회원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을 하게 됐다"며 "아이들의 가능성과 노력이 힘이 되어주며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며 "미래 주역인 학생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창단한 진안 농협 행복이음 봉사단은 매월 회원들의 기금조성으로 운영되며 농촌일손돕기, 삼계탕 나눔행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 지킴이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여성일자리 창출·기업 확산 기대’

무주군, 여성들과 함께 하는 워라벨 기업만들기 앞장

무주군은 9일 오후 새롭게 선정된 여성친화일손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친화적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윤정훈 도의원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진희 센터장을 비롯한 농업회사법인(유)무주원(대표 한정훈), △덕유신비디오통영농조합법인(대표 이정원),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이사장 이현승), △산비울영농조합법인(대표 박민철), △농업회사법인 생기찬(주)(대표 최영), △남영제약영농조합법인(대표 전순애), △일성제지산(주) 무주지점(대표 이규포) 대표 등이 참석해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문화적 환경구축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적극적인 고용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 시간이 기업에는 인력충원의 기회가 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안정적 취업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군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친화적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관내 기업은 물론, 여성친화일손기업들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최정철 팀장이 진행하는 "2023년 달라지는 고용정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 설명과 함께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로부터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정책 활용 컨설팅"을 받았다.

또 상호 협력 방안과 기업운영 및 인력활용 등에 대한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고 2023년도 대표협약기업인 무주원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무주군 여성친화일손기업으로 등록된 곳은 이날 협약을 체결한 신규 업체를 포함해 총 15곳으로 이들에게는 전라북도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인재 우선 연계,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환경개선 △기업홍보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구직여성들과 기업 간의 취업 연계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상담사 2명이 무주여성센터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무주군은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취업상담사와 함께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하고 취·창업 분야를 확대해 만족도 높은 일자리 마련에 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여자축구의 미래 한국희 선수, ‘엄마의 밥상’ 성금 기부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한국희 선수(울산 현대청운중 2학년)가 전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아침밥을 함께 차리기로 했다. 한국희 선수는 8일 전주 시장길을 찾아 '엄마의 밥상' 사업(시 주관 기부사업)을 위한 성금 150만 원을 기부했다.

전주 출신인 한국희 선수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로 3년째 해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을 기부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는 지난 달 막을 내린 '2023년 춘계여자축구연맹전'에서 한 선수가 소속된 울산현대청운중학교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14골을 넣어 최다득점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진행됐다.

이에 앞서 한 선수는 지난 2021년 광고수익금 150만 원을



엄마의 밥상 성금으로 후원했으며, 이듬해인 지난해에도 제4회 차별근축구상 최우수 여자선수상으로 선정돼 받은 100만 원의 상금을 기부한 바 있다. 한국희 선수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있다"면서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여 희망을 나누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나눔을 실천해준 한국희 선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무대를 누비는 대한민국 여자축구 미래를 빛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남원소방서, 가정의 달 소방서 체험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9일부터 말일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OPEN-소방서!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학교와 어린이집 및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어린이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흥미 위주의 체험교육과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서 관람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차량 소개 및 탑승체험 △방화복 착용·관찰 방송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포토존"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습 등이며, 문의 사항이나 체험 및 교육을 원하는 어린이나 가족들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 담당자(600-8244) 연락 후 방문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발효테마파크 소방안전체험버스 운영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발효테마파크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소방안전체험버스를 운영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순창소방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순창소방서의 용소방대연합회에서도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우선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지만,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 배우기,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배부, 소방관과 함께 사진찍기 등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구성했다.

특히 심폐소생술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 하마리 하마리 등 어른들의 다양한 관심과 질문 속에서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현경 혁신교육개발원장, 대한화학회 교육진보상



김현경 혁신교육개발원장이 2023년 대한화학회 교육진보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회 대한화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김현경 원장은 화학교육계에 재직하며 우리나라 화학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진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원장은 화학교육 관련, 약 60편의 우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다수의 국제 학회 및 국내 학회 발표, 사회, 좌장 등을 수행했다.

또한 굵직한 국제 사업에도 다년간 참여하기도 했다. 전북대 양요봉 총장은 "보직 교수직을 수행하면서도 학교 발전과 화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혁신교육개발원장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국가 거점대학인 전북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육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경 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대학, 그리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화학회는 1948년 설립된 비영리 학술단체로 화학 분야의 학술과 기술 발전, 교육 및 화학 지식의 확산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 국내 최대 최고 학술단체다.

/장은성 기자

이수민 전북대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상



전북대학교 이수민 대학원생(화학공학부 박사과정?지도교수 민지호)이 효모에서 분리한 액포(液泡)를 면역조절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수민 대학원생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23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효모 유래 액포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IPS 유도 염증 매개체 억제라는 주제의 연구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효모에서 분리한 액포의 면역조절제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한 연구로 연구논문의 중요성과 이론적 기여도, 독창성, 적절한 방법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수민 대학원생은 "희미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힘을 모아준 민지호 교수님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다양한 질병에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제로서의 효모 유래 액포의 잠재력을 시사하며 액포의 나노메디슨으로 적용연구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 금지면, 인생 사진 전달

남원시 금지면(면장 안민엽)은 봄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인생사진관을 운영해 어르신 20명에게 액자와 함께 캐비전을 전달했다.

사진액자와 캐비전을 전달받은 장수어르신 안귀섭(100, 석정)은 "면에서 찾아와 사진도 찍어주고 어버이날까지 찾아와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안민엽 금지면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고령 어르신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극락암 신도회 현금 300만원 기탁

남원시는 9일, 극락암 신도회(회장 황요순)에서 시청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달라며 현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어르신에게 위치한 극락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로 매년 신도들이 쌓아나 현금 모금을 통해 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기탁된 성금은 전 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은영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에 깊이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